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1. 기본정보

학과	법학과	이름	김*지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밴쿠버
파견대학	Langara College	파견기간	2018.02.27~2018.06.17
귀국여부	'아니오'인 경우 귀국예정일을 알려주세요.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스카이트레인역에서 도보로 7분정도 소요되며 학교 바로 앞에는 Manitoba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학교 규모는 크지는 않지만 시설은 깨끗합니다. 저는 주로 카페테리아와 도서관을 이용하였는데 분위기는 활기차고 여러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p>

2018-1학기 수업	<p>본인이 수강한 과목, 각 과목에 대한 평가를 적어주세요. 예) 수업내용, 수업방법, 과제, 수업준비, 추천과목, 비추천과목 등</p> <p>세션 시작 전에 writing, speaking, reading 세가지 레벨 테스트를 보고 이에 따라서 반이 정해지고 결정된 반에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가 한 번 더 있습니다. 수업은 4시간으로 선생님 두 분이 번갈아가면서 요일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진행됩니다. 오전반과 오후반이 있으며 LEAP1~3까지는 오후반이고 LEAP4~6까지는 오전반으로 진행됩니다. 매주 다른 주제로 듣기, 읽기, 쓰기 과제가 있으며 성적에 반영되는 시험도 봅니다. 숙제는 매일 한시간 반 정도 할애하였고. 숙제를 안하면 다음날 수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꼭 하셔야 합니다. 저는 LEAP3와 4를 들었는데 3에서는 교재 이외에 3권의 책을 사서 읽는 과제가 있었고 팀과제와 개인과제가 있습니다. 4에서는 두번의 팀과제가 있습니다.</p>
프로그램 운영	<p>외국인 학생을 위한 지원현황 예) 오리엔테이션, 교환학생 참여 프로그램, 담당부서, 담당자명, 상담 프로그램 등</p> <p>오리엔테이션은 다양한 국제학생들과 함께 모여 진행됩니다. 기본적인 밴쿠버 날씨나 생활정보에 대해서 설명해드립니다. 국제학생들이 참여할만한 프로그램으로는 I-chat, I-sports, I-café 등이 있습니다.</p>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	-----------

날씨	<p><i>현지 기후 및 유의점</i></p> <p>굉장히 건조하다는 말을 많이 듣고가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3월~6월까지의 걱정만큼의 건조함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3-4월은 비가 정말 많이 오기 때문에 바람막이와 같은 옷을 챙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5-6월의 날씨는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저는 6월까지도 후드를 입고 생활했습니다. 이 시기에 밴쿠버에 가게 되신다면 후드와 가디건을 많이 챙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p>
안전	<p><i>현지 안전 상황</i></p> <p>밴쿠버는 매우 안전하고 평화롭습니다. 겨울에는 해가 짧아서 6시쯤이면 해가 지지만 5-6월에는 9시까지 해가 떠있기 때문에 더욱 더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었습니다.</p>
숙소	<p><i>학교기숙사() 홈스테이 (v) 외부 숙소() 기타()</i> <i>기숙사 이름,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i></p> <p>랑가라 컬리지는 따로 기숙사를 운영하지 않고 홈스테이를 연결해줍니다. 저는 중국가정에 배정되었고 중간중간 일본인 룸메와 함께 지내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집은 2층집으로 1층은 저와 일본인 룸메가 사용했고, 2층은 홈스테이 가족들이 사용했습니다. 식사는 2층에서 가족들과 함께했고 화장실은 1층에도 따로 마련되어 있어서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빨래는 일주일에 1번 요일을 정해서 사용했습니다. 홈스테이에 대한 걱정이 많았는데 저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만일 홈스테이가 맞지 않는다면 룸렌트나 다른 홈스테이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p>

식사	<p>학교 Meal Plan () 학교식당 개별이용 () 홈스테이 (v) 외부식당 (v) 직접 요리 () 기타 ()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p> <p>식사는 가정마다 다르지만 저는 아침으로는 항상 시리얼과 빵이 준비되어 있었고 점심은 도시락으로 챙겨주시는데 샌드위치 또는 저녁 식사 후 남은 음식으로 챙기는 레프트오버로 제가 직접 챙기기도 했습니다. 저녁은 항상 다른 메뉴로 다양하게 나왔기 때문에 항상 맛있게 먹었습니다. 또한 밴쿠버에는 다양한 음식들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친구들과 외식을 자주한 편이었습니다.</p>
교통	<p>통학방법, 시내교통, 주요도시 이동 관련</p> <p>밴쿠버는 스카이트레인과 버스가 잘 되어있습니다. 우리나라 티머니처럼 교통카드인 컴패스 카드를 구매하고 충전을 해서 사용합니다. 저는 학교까지 걸어다녔기 때문에 먼슬리 패스(93달러를 내고 버스나 스카이트레인을 무제한으로 타는 것)를 구매하지 않고 조금씩 충전해서 사용했습니다. 먼슬리 패스를 사는 것도 존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지만 대부분 1존으로 구매하시면 충분하실겁니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	----	----------------

항공료	약 100만원	대한항공으로 왕복 구매
Fees	교환학생 파견 시 Tuition의 경우, 양교 협약에 의해 면제가 됩니다. 학교별로 Tuition 이외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상이한데 본인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상세히 적어주세요. 예) University Support Fee, \$3,000	본교 등록금
보험료	13만원	한화해외여행보험
숙소	830CAD*3 + 27CAD*18	한달에 830달러/ 2월과 6월은 하루에 27달러씩
식비	약15만원	외식비용
교통비	93CAD/ 100CAD	먼슬리 패스와 개인충전비용
책값	30CAD	LEAP3때 책 3권구매
기타1	50만원	용돈
기타2		
합계	650~700만원	여행비용 포함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미리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분량 자유)

저는 한국에서 스마텔을 통해 유심을 구매해서 갔지만, 미국 여행과 요금을 고려했을 때 비싼편인 것 같아서 밴쿠버에서 새로 유심을 구매했습니다. 가격과 사용에는 불편함이 없었지만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유심을 해지할 때는 일처리가 느려서 조금 답답했었습니다. 본인의 여행이나 요금에 대해서 잘 고려하셔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홈스테이에서는 빨래가 일주일에 한번이기 때문에 수건을 7개 정도 챙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출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외투를 다양하게 챙겼는데 그것보다는 안에 입을 후드나 집업을 많이 챙기는 것을 추천드려요. 샴푸나 린스도 큰 것 챙겨오지 마시고 여기서 구매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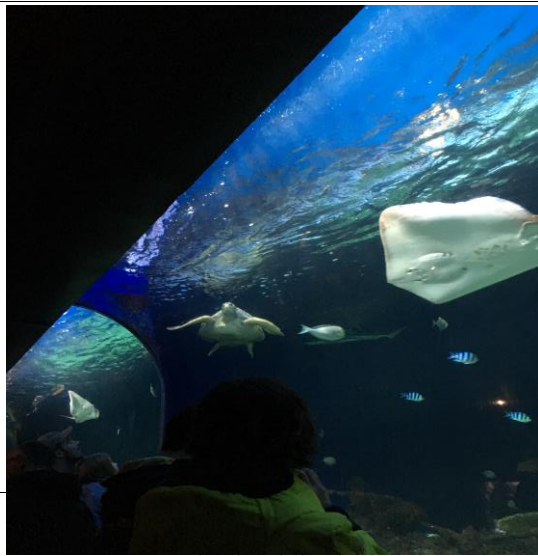
6. 본인 소감 및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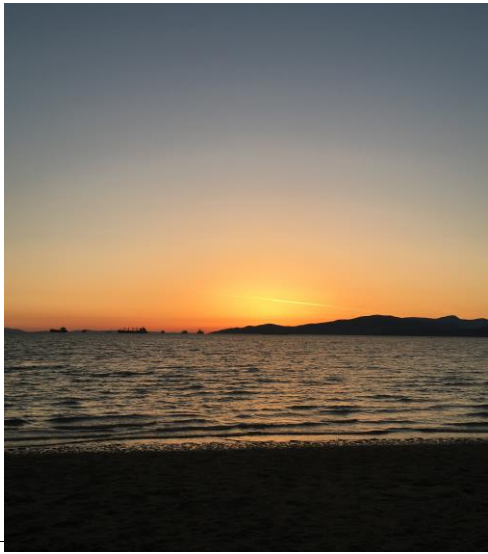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분량 자유)

교환학생을 가기전까지도 4학년 1학기에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고민이 많았는데, 다녀온 지금은 한 학기만 다녀온 것이 너무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랑가라 컬리지에서의 수업내용은 제가 기대한 내용은 아니었지만 오히려 제가 부족한 부분인 writing과 listening에 대해서 더 배울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다른 여러 나라 학생들과 함께 배우고 대화하며 자연스럽게 회화 능력도 기를 수 있었습니다. 4개월은 짧은 시간이지만 보고 느끼는 것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환학생동안 집에 있기 보다는 밖에서 다양한 체험을 하면서 해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없어졌고 어디에 가더라도 잘 적응해낼 자신이 생겼습니다. 분명 짧은 시간이지만 영어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직접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잉글리쉬베이 노을



딤코브



빅토리아